

여성의 광기와 무의식의 욕망

— 백신애론 —

우 미 영*

1. 서론
2. 딸의 서사, 딸의 정체성과 어머니
3. 여성 광기의 내포와 외연
 - 3.1. 사랑을 통해 본 근대 여성의 비극적 세계 인식
 - 3.2. 분열의식의 극복 방법으로서의 여성의 사유 방식
 - 3.3. 여성의 불가지론과 무의식의 주체
4. 여성 광기의 두 차원
5. 맺음말

초록

광인은 동서고금의 문학 작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주변 또는 타자의 입장에서 중심과 주체 및 그를 아우르는 전체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중심을 인식할 수 있고, 둘의 관계를 조명하여 주변성도 온전하게 해명할 수 있다. 나아가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기려진 모순과 부조리의 구조를 해체하여, 건강한 구조 짜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여성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광기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 문학에 나타난 광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거세된 여성들의 주체적 반응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 광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백신애의 소설들을 통해 여성의 광기를 둘러싼 의미망을 분석해보았다. 백신애 소설을 통해 볼 때 여성의 광기는 여성의 주체 형성과 자기 이해 방식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녀의

* 한양대 강사

소설에서는 가부장제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성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랑을 통한 창조적 주체로서의 여성성의 면모도 드러난다. 후자는 근대적 개인 주체의 의식에 힘입은 것이며, 그녀 소설에 나타난 여성 광기의 바탕에는 후자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근대 여성 주체의 내면을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타자, 여성 및 광기와 의 함수 관계, 나아가 타자와 광인 및 문학과와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명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어느 시대나 광인은 있어왔고, 이들을 품어 안고 나아가서 형상화하여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문학(또는 예술)의 몫이었다. 푸코가 지적했듯이 광인을 규정하는 광기는 비존재, 즉 있지 않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역설적인 개념이다.¹⁾ 결국 그것은 실체라기보다는 관점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이성이 있어왔고, 그것은 중심의 관점에서 주변에 대한 폭력적 해석과 지배를 행사해 왔다. 그러한 관계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역에 대한 중앙의, 감성에 대한 이성의 작용과 유사하며, 때로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많은 접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후자는 언제나 전자에게 알 수 없는 것, 신비로운 것, 환상적인 것, 우연에 지배받는 것, 낭만적인 것, 어두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결핍이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듯이, 주변은 중심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문학과 예술이 광기에 주목하는 저의도 여기에 있다.

특히 여성문학에서 광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인 에어』의 버사 메이슨으로 대표되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광기와 미친 여자들은 대개 작가의 분신이며 작가 자신의 불안과 분노의 이미지로 해석된다. 즉 그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1) 미셸 푸코,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인간사랑, 1995), p.122.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분열-참존재와 강요된 존재 사이의 분열-을 광기의 인물들을 통해 표출한다.²⁾ 그리고 그것은 남성적인 상징 질서 속에서 부재와 비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여성 존재의 부재성과 비존재성을 극복하기 위한-글쓰기의 전략이기도 하다.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는 19세기 서양의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미친 분신”과 “여성 작가의 정신분열”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³⁾ 여성 작가의 분열적 면모는 한국 여성 문학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친 여자의 모티프 또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 흔히 발견된다. 『狂人手記』라는 명시적 표제를 단 백신애의 작품 이외에도 이러한 경우는 강경애, 김말봉, 장덕조 등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며⁴⁾ 나아가 오정희를 비롯한 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자주 발견된다.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광기는 무의식적인 주체성의 억압과 상실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굴절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백신애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여성 광기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9년 「나의 어머니」로 등단하여 1934년에서 1939년에 걸쳐 주로 작품 활동을 한 백신애는 동시대의 “박화성, 강경애에 비하여, 여성적인 감성이나 사교의 영역에 근거하여 여성 리얼리즘을 확보한 작가”⁶⁾로서, 작품을 통해 여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가이다. 이러한 백신애 소설의

2) S. Gibert & S.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New Haven: Yale Univ. Press, 1979), p.78, TORIL MOI, 임옥희·이명호·정경심 공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한신문화사, 1994), p.70에서 재인용.

3) Toril Moi, 위의 책, p.70.

4)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235~246.

5) 김현자·김현숙·이은정·황도경, 『한국여성시학』(깊은샘, 1997), p.138.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오정희 초기소설의 재해석」, 『작가세계』(1995. 여름).

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6), pp.437~439.

여성적 특질들은 작품에 나타난 모성성⁷⁾과 글쓰기의 언어적 형식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여성의 광기는 여성적 글쓰기의 언어적 특징 중의 하나인 광기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주로 형식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언어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광기를 해명할 경우,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 도출이 연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의 개별성 및 실체는 보편성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 광기의 내포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것은 곧 여성 광기의 속성과 내적 토대를 살펴 백신에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특질들이 광기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백신에의 작품에서 여성의 무의식을 억압하는 실체는 무엇이며, 여성을 광기로 치닫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드러나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광기의 외연이 드러날 것이다. 백신에의 소설에는 실제로 미친 여자 또는 정신분열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광기의 속성을 지닌 언어들, 자주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사의 차원 중에서도 작중 인물과 언어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광기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 여성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그들 여성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 또한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딸의 서사, 딸의 정체성과 어머니

백신에의 첫 작품이 「나의 어머니」라는 점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해석

7)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

송지현, 「1930년대 한국소설에 있어서의 여성 자아 정립 양상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69~79.

8) 김미현, 「'사이'에 집짓고 살기」,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지음, 『페미니즘과 소설 비평』(한길사, 1995).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것은 곧 ‘어머니’가 그녀의 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낸시 초도로우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리가레이 등의 전오이디푸스 단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성의 주체 형성에 미치는 엄마-딸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백신애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양상은 식민지 시대 여성의 주체 형성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형상화된 모성은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여성에게 모성신화를 강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나타나거나,⁹⁾ 여성작가의 경우 나혜석처럼 어머니되기(mothering)와 여성정체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드러난다.¹⁰⁾ 백신애의 소설에서 어머니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모성을 지닌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면, 자신의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과 어머니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 전자는 「적빈(赤貧)」과 「호도(糊塗)」에서, 후자는 「나의 어머니」와 「혼명(混冥)에서」에서 그 면모가 잘 드러난다.¹¹⁾ 특히, 후자의 두 작품은 비록 딸의 관점에서 어머니를 그린 딸의 서사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끼치는 어머니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바는 후자의 이러한 측면이기에, 여기에서는 「나의 어머니」와 「혼명에서」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의 어머니」와 「혼명(混冥)에서」의 주인공인 지식인 여성들은 자신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다. 「나의 어머니」의 주인공인 ‘나’는 “보통 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여자청년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일조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나서는” 청년회의 문예부를

9)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 담론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제3호(태학사, 2000).

10) 이상경,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 pp.37~39.

11) 본 논문은 金潤植 편, 『自信愛小説集 꺼레이』(조선일보사, 1987)를 기본자료로 삼았다. 이하 인용한 예문에는 단편의 제목과 페이지만을 표기하고자 한다.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다. 청년회관 건축을 위한 소인극(素人劇)을 책임지다보니 귀가 시간이 늦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어머니와 갈등하게 된다. 어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이 사상 운동으로 감옥에 가 있고, 딸마저 그러한 일로 잃을까 두려워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바라는 삶은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삶이다. 그리고 주인공인 딸 '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완고한 옛 도덕과 인습에 폭 싸인” 여성의 모습을 본다.

『혼명(混冥)에서』의 주인공은 자기 성찰에 대한 강한 욕구와 갈망을 표출한다. 그녀는 “눈 멀고 귀 먹은 자의 정적” 즉 “외계의 구애”가 없는 공간을 소망하는데 이것은 바로 고요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조건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간절한 갈망은 현실 즉 “외계”가 구애로 가득 차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이 외계의 구애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이다. 백신애의 소설에서 어머니는 가족, 가부장적 사회 그리고 외계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삶을 매개하는 인물이다. 백신애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무의식적 주체를 억압하는 실체는 어머니로 상징화된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상징적 질서인 대타자의 매개자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의 수호자 또는 매개자로서의 어머니를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페미니즘 소설에서조차도 어머니는 서사 밖에 위치하거나, 서사 내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왔다.¹²⁾ 그러나 그것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 실제로 여성의 주체 형성에서 어머니와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여성 주체 형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성에 대한 동일시와 거부의 동시적인 양가적 감정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갈등하고 투쟁하는 여성의 모습이 오히려 실제적이다.

백신애의 소설에서 딸의 관점에서 본 모녀 관계의 형상화가 갖는 의의는 여기에 있다. 그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표리부동하며 혼란스럽다. 그녀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는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며,

12)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태학사, 1998), p.6.

도덕과 인습에 얽매인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민을 품으면서도 결코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어머니와의 대화 도중에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더니 그 피가 일제히 머리를 향하여 달음질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거나, “모가지까지 무엇이 꼭 찬 것 같은” 느낌은 어머니가 강요하는 억압적 삶에 대한 여성의 육체적 반응이다.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강요는 어머니에 의해 대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받는 그녀의 압박감이 얼마나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가도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내면적 거부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민과 동정 등의 혼란스러운 이중 감정은 “갇은 수단을 다하여 속아달라”는 나와 “나를 속이지 못하여 고민”하는 나로 여성 주체를 분열시킨다. “갇은 수단을 다하여 속아달라”는 나는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와 연민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부장적 삶을 강요하는 나이다. 반면 “나를 속이지 못하여 고민”하는 나는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목소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이다. 백신애 소설에 나타나는 지식인 여성의 갈등은 이 양자 사이의 고민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 고민의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악마”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이 타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즉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주체적 자아를 부정하는 괴로움에서 비롯된 자기 규정이다.¹³⁾

그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보람될 것이라고는 가지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13) 조세핀 도노번은 여성이 대상 또는 타자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광기와 정신분열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문예출판사, 1996), p.251.

김정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여성 시인들이 스스로를 <광인> <노예> <매음녀> 등의 타자의 타이틀을 부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란, 『마녀에서 어머니로-8, 90년대 여성 시인들의 여성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시적 인식』, 『詩와 反詩』(1994. 봄), p.140.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그들이 나에게 바라고 있는 바를 기어이 배반하여 버리려고, 아니 배반하고 말리라, 배반하여 버리지 않고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악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성은 나에게 고통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바는 오로지 압박, 천대, 그리고 축출! 이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얼마나 용감해질 수 있으리-.

그들의 지극한 은혜(恩愛)는 나에게서 용기와 자유를 고살(苦殺)시킬 뿐입니다.

-「혼명에서」, p.253.

여기에서는 또 어머니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려는 여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은 관계 지향적인 여성 주체의 특성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가족으로부터의 압박감과 구속감에 대한 괴로움은 완전한 근대적 개인으로 탄생하려는 여성의 과도기적 모습이기도 하다. 즉,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역학 관계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곧 가족-자아의 면모인데, 가족-자아란 개인-자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이전에 가족이 있으며 가족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행동들을 통해 개인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¹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은 근대적 개인 주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백신애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은 이러한 근대적 개인의 주체성을 지향하는 자기 의식과 이를 가로막는 현실과의 사이에서 갈등한다. 1920년대 여성작가들에 비해 1930년대의 여성작가들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성 억압의 현실을 그려냈다고 본다면,¹⁵⁾ 백신애의 이러한 갈등 또한 당대 지식인 여성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동녘, 1999), p.50~53.

15)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평민사, 1996), p.94.

3. 여성 광기의 내포와 외연

백신애의 소설에서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내면적 거부의 정도는 한마디로 폭발 직전이다. 이러한 그녀의 내면은 「광인수기」 및 「아름다운 노을」과 같은 후기의 광기 어린 작품들을 생산해 내는 토대가 된다. 여성의 광기는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성적 혹은 문화적 거세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반응이다.¹⁶⁾ 백베드 부인이 “죽은 베게들”에게만 말해 왔던 자신의 진실을 “알아서는 안될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방식이 정신착란이듯이¹⁷⁾ 백신애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광기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혹은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욕망과 진실에 대한 심적 부담을 광기를 통해 폭로한다. 여기에서 여성을 부재 또는 비존재로 평가 절하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이데올로기와 분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백신애의 소설들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세계 인식과 삶의 태도 및 자기 이해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세계 인식의 방법, 삶의 태도 및 자기 이해 방식이 세 가지는 비극성, 분열성 및 불가해성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백신애 소설의 주인공들이 광기를 갖게 되는 내적 속성 즉 내포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또한 여성들이 광기에 치닫게 되는 과정과 그 필연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고찰을 통해 여성 광기의 외연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3.1 사랑을 통해 본 근대 여성의 비극적 세계 인식

근대 이전의 사랑은 인류의 형식으로 제도화된 것이었기에 거기에는 개인의 자기 성찰이 끼어 들 여지가 없었다. 반면 근대에 이르러 사랑은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판단 문제로 분화된다. 사랑이 근대성과 개인

16) 메기 협, 심정순·영경숙 역, 『페미니즘 이론 사전』(삼신각, 1995), p.48.

17) 미셸 푸코, 앞의 책, p.43.

의 자기 성찰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제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¹⁸⁾ 그런데 성별화된 근대성의 논리 안에서 사랑 또한 성별화되었다는 것을 여성작가와 남성작가들의 사랑관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랑 또는 연애는 남성들이 자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¹⁹⁾ 그렇다면 여성작가들에게 사랑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사랑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은 세계와 어떻게 부딪치고 있는가?

사랑은 백신애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가난한 여인들의 사랑과 지식인 여성의 사랑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채색교」 「복선이」 「소독부」에, 후자는 「혼명에서」와 「아름다운 노을」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사랑은 대부분 좌절된다. 「채색교」에서 천돌과 복순의 사랑은 하룻밤의 홍수가 앓아가 버리고, 「복선이」와 「소독부」에서 복선이와 색시에게는 전근대적인 결혼 방식에 의해 개인의 사랑 감정은 들어설 여지도 없다. 지식인 여성의 사랑과 자기 성찰을 다룬 「혼명에서」에서도 「나」가 발견한 사랑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죽음의 소식을 전해 온다. 「아름다운 노을」은 예외적이다. 거기에서는 결론부의 비약을 통해 사랑의 성취를 계몽적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진정한 자신의 사랑과 가족이 정해준 사랑과의 사이에서 빛어지는 주인공 내면의 갈등이어서, 그 예외성의 정도가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진 않다. 결국 가난한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도 여성의 감정 자체가 들어설 여지조차 없는 여성에 대한 세계의 폐쇄성이 잘 드러난다. 또 지식인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들의 주체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굴절될 수밖에 없는 세계의 한계가 드러난다.

「채색교」 「복선이」 「혼명에서」 등을 읽고 있노라면 현진건의 「운수

18) 최혜실,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 사랑, 성」,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태학사, 1999), pp.156~158.

19) 최혜실, 앞의 논문.

정혜영, 「'연애'의 동경과 좌절」, 『현대소설연구』, 제11호(1999.12).

_____, 「근대를 향한 시선—이광수 『無情』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태학사, 2000.6).

좋은 날」(『開關』 48호, 1924.6)이 떠오른다. 그것은 이 소설들의 구조적 상동성에 기인한 연상의 결과이다.²⁰⁾ 소설의 이중 구조 즉,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설 전반부의 상승 구조에 뒤따르는, 소망이 좌절되는 후반부의 하강 구조가 이들 소설의 구조이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의 이중 구조는 주인공의 비극성을 강화한다. 「채색교」의 무지개의 꿈과 같은 남녀간의 사랑도, 「복선이」의 시집 와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게 한 복선의 분홍저고리의 꿈도, 사랑하는 대상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혼명에서」의 ‘나’의 설레임도 후반부의 급격한 하강구조를 통해 모두 좌절된다. 그 결과 주인공들의 비극성은 더욱 배가된다. 이것은 곧 자기 실현의 길이 차단된 여성 작가의 비극적 세계 인식이기도 하다.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에서조차도 여성은 자신의 욕망과 주체성을 위한 공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복선이」와 「소독부」에서는 전근대적 결혼의 방식이 여성에게 가한 성적 억압이 잘 드러난다. 「복선이」의 복선은 「복선이 하나 입이라도 떨어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짐을 하나 벗게 되는 것」이라는 부모의 생각에 의해 열 네 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된다. 가난은 다소 면했으나 그녀의 딱 하나 고민은 “벌써 나이 찬 남편이 밤이면 추근추근히 굴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었다.” 「소독부」의 색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시집 오던 날부터 무섭고 괴롭고 하여 울며 이를 갈면서도” 아내 노릇을 한다.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대하는 남편의 태도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처지가 이들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원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 차단된 현실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랑이다. 이것은 ‘낭만적 사랑’이기도 하다. 그것은 욕정이나 노골적인 섹슈얼리티와는 양립불가능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는 성격을

20) 현길연,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문학과 비평, 1991), pp.198~205.
김미현, 앞의 논문.

씨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한다. 이것은 곧 자기정체성의 실현과 관련된 개념으로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다.²¹⁾ 식민지 시대 지식인 여성들에게 사랑은 남녀 불평등 사상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평등과 대상과의 친밀도를 느낄 수 있는 자기 실현의 한 출구였다. 「혼명에서」와 「아름다운 노을」의 지식인 여성들의 사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자아와 가족/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 주인공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²²⁾ 백신애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난관의 형상화를 통해 근대적 개인 주체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여성의 노력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3.2 분열의식의 극복 방법으로서의 여성의 사유 방식

가난한 여성 또는 지식인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백신애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여성문제의 중심이다. 이에 대한 내면적 갈등의 포화 상태가 여성 인물들을 광기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현수」라는 작품에서는 이러한 광기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껏 살려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현수는 “치과의원을 개업한 지가 2년이 넘었으나 한 번도 양심에 거리는 치료를 해 준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허위와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면하며 살아가

21)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p.91.

22) 조주현은 남녀를 통틀어 한국 사회의 경우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낭만적 사랑은 결혼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전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그 가족은 기존의 가족의 영향하에 놓인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낭만적 사랑과 성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의 탄생과는 거리가 있었고, 여전히 가족-자아가 지배적이었다.”(조주현, 앞의 논문, pp.50~51.)

는 것이다. 즉, 그는 행위 자체에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충실함과 순수함이다. 이러한 그에게 세상은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비친다. 그의 분노와 짜증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이 그렇다고 느껴질수록 그의 감정과 행위는 이율배반적이 된다. 그에게 자신은 감정에 충실한 진실한 인간으로, 세상은 가식적인 행위로만 가득 찬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세상에서는 그를 정신병자로 또는 별난 사람으로, 그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를 인식하면서 양자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분열의 징후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현수의 理想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의 주인공인 무이시킨,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돈키호테의 理想을 연상시킨다.²³⁾

그러나 이러한 결벽에 가까운 극단성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사유방식의 한편에는 비결정적이고 회의하는 습성이 있다. 그가 자신의 형에게서 “거짓 없는 진실과 참다운 사랑”을 확인하고 “진리란 것은 내가 미워하는 허위 가식으로 된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와 화해하게 되는 근원에는 이러한 사유 방식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에게 희생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 아니야.** 과거의 인류역사란 고삐에 나는 단단히 묶여 있다. 나는 용감하게 묶은 줄을 끊고 일어서야 한다. 이 현실에 희생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이 더러운 현실을 조장시킴에 불과한 것이다.’

(…중략…)

‘아니, 이 자식 무엇이 어째, 인간이란 본래 허위, 가식으로 된 거야.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먼친은 못하는 거다. **아니다.** 이 자식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해, 참으로 인간이란 허위 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놈의 세상에는 살아 있지 않을 테다. **아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말뚝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는 데…….’

23) 이에 대해서는 E. H. 카, 김병익·권영빈 역, 『도스토예프스키』(홍성사, 1981)의 pp.210~21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략…)

‘에—공연히 온갖 오라질 생각을 다 하는구나. 차라리 저 말새끼 놈이 나보다 행복하다. 이따위 밑도 끝도 없는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아니다**. 말새끼같이 무의무식하다면 나올 게 뭐 있다.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다. 말도 무슨 번민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나 좀 있으면 형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는데.’

—「정현수」, pp.159~160.

위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정현수의 사유 방식은 여성의 사유 방식에 아주 가깝다. 여성의 현실적 위치는 남성 중심의 상징 질서 바깥이며 그럼에도 여성들은 부단히 상징 질서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상징질서의 안과 밖의 점점 지대 또는 경계에 위치하게 되며, 자의식이 강한 여성들은 그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모색을 지속한다. 상징질서에 대한 거부는 자기부정과 자기성찰로 이어지며 여기에서 여성의 사유는 비결정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여성의 정신분열적 면모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위 예문에서 반복되는 “아니다”는 바로 여성의 비결정적인 상태에서의 방황과 자기부정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리고 분열에 가까울 정도로 부단히 끼어드는 자아의 여러 목소리는 여성의 언어를 닮았다. 그러나 이것은 분열이라기 보다는 부단한 자기성찰과 회의적 사유에 더 가깝다. 「정현수」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감과 여성의 고립감은 등치될 수 있으며, 그의 분열 직전의 광기는 이러한 여성적 사유 방식을 통해 극복되고 있다. 백신에는 삶을 광기로 몰고 가는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가 여성성—여성적 사유 방식—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정현수」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성의 극단이 광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3.3 여성의 불가지론과 무의식의 주체

가부장적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거세된 존재’ 또는 ‘결핍된 남성’이다.²⁴⁾ 상징계에서 작동하는 남성중심의 동일성의 논리는 여성이 그들 자신을 재현할 수 없도록 한다. 지배담론 속에서 여성은 항상 “무대 밖에서 존재하며 재현될 수 없고 자아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이다.²⁵⁾ 따라서 남성의 논리에 따라 세계를 해석할 때 여성의 고유성은 해석의 입지점을 상실한다. 주체는 경험 자체를 조직해 주는 논리적 구조에 의해 구성된다고 볼 때²⁶⁾ 여성은 상징질서를 거부하면서도 또한 그 밖에서는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발견할 수 없다. 여성들 스스로 자기 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²⁷⁾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 고유의 의지는 여성 자신에게도 불가해한 것이 된다. 즉 그녀의 의지는 무의식의 주체가 되어 욕망의 차원으로 억압되어 버린다.

백신애의 소설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 한다. 특히 「혼명에서」와 「아름다운 노을」에서 이러한 여성의 불가지론 또는 자기 불가해성은 잘 드러난다. 「혼명에서」의 주인공 ‘나’는 어머니와 가족이 바라는 삶에 순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에 대해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 「아름다운 노을」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4) 레나 린트호프, 이란표 역, 『페미니즘 문학이론』(인간사랑, 1998), p.127.

25) 뎀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194.

26) 이정우, 『시플라크르의 시대—들뢰즈와 사건의 철학』(거름, 1999), pp.144~145.

27) 한국 여성 문학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은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소설에서는 박완서, 오정희, 이경자, 양귀자, 김향숙, 김채원 등에서, 시에서는 강은교에게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김혜옥, 「한국여성소설을 통해본 ‘근대성’과 ‘여성성’의 대위법」, 김혜옥 외,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깊은샘, 2000), p.35. 김정란, 앞의 논문, p.140.

‘미쳤느냐! 네가 그림을 그리려는 그 정열만으로 이 집에 오는 것이냐. 갑자기 그림에 그다지도 열이 났느냐. 만일 이 길로 소년을 대하면 어떠한 표정으로 대할 것인가. 그리고, 성규씨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 것인가. 네가 왜 이다지 무쾌도한 감정에 끌려 광에 가까운 생각과 행동을 감행하는가. 무슨 까닭에 며칠이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림에 도취되었던가. 아! 단순히 그림에 열이 났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고 누가 내 귀에다 속삭이는 듯하였어요. 나는 횡 발을 돌려 열린 병원 앞을 떠나 전차길로 나섰지요. 그 때 돌아서는 가슴 속이 왜 그다지 괴로웠을까요!

-「아름다운 노을」, p.300.

「아름다운 노을」은 제도적 결혼에 거부감을 가진 미술 전문 출신의 화가인 순희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소설가인 나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그녀가 사랑하는 대상이 약혼자의 동생이요 자신의 아들보다 세 살밖에 많지 않은 소년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순수한 사적 감정이 당대의 사회적 인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회적 금기가 스스로에게도 내면화되어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규정하기를 두려워하며 또 외면하고자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조차도 솔직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무의식적 주체의 부름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태도가 아니라 그녀의 욕망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 주체는 자신의 불가해성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그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4. 여성 광기의 두 차원

근대에 이르러 자기 확인의 한 통로가 된 사랑 또는 연애에서도 여성은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차단된 세계에서 내

적 사투를 벌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 그녀는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부단히 회의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은폐하고 또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체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 본 백신에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모습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신에 소설의 여성의 광기는 발현한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각기 양상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여성의 주체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가부장적 질서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주의의 물결이 공존하던 한국의 근대적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 광기의 양상이 모습을 달리한다.

백신에의 『광인수기』는 형식과 내용에서 여성 광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광인의 수다나 녀두리, 욕설 등을 통해 광기의 언어의 전형을 보여준다.²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1차적인 존재 의의는 임신과 출산에 있으며 그를 위해 그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아내의 자리이다. 남편의 외도는 이러한 그녀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정신을 잃게 되는 「광인수기」의 ‘나’는 가부장제의 권력 관계 내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남편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²⁹⁾

백신에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빈민 여성들과 지식인 여성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때,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성을 간직한 인물들이다. “욕망이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라캉의 명제를 떠올릴 때, 이 여성들의 욕망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성에게 의해 타자화된 욕망이다. 그들의 자기 인식 또한 철저히 타자화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분노가 이들 작품의 기본적인 어조이다.

28) 김미현, 앞의 책, p.236.

29) 조주현, 「미친년 녀두리-백신에의 「광인수기」와 길만의 「노란 벽지」를 중심으로」, 『또하나의 문화』 제9호(1992), pp.173~180.

한편, 지식인 여성의 광기는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주체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백신애가 주로 작품 활동을 한 1930년대 중·후반기(1934~1939)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주의가 공존하던 시기라는 점에 주의할 때, 여성 광기의 상이한 층위들은 이해될 수 있다. 즉, 근대적 개인의 주체적 사고를 교육받은 지식인 여성들은 전근대적 여성들의 타자성을 극복하는 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식인 여성의 광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름다운 노을』의 주인공인 순희의 광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노을』에서는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자기 분열과 광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미술 전문 양화과를 나온 화가인 순희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치과 의사인 김성규와 약혼을 앞두고 있다. 순희의 고민은 성규의 동생인 정규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즉, 약혼이 정해진 남자의 동생에게서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예술적 이상으로 생각하던 인물상을 발견하게 되고, 예술적 흥분에 빠지게 된다. 그녀에게서 예술에의 열정과 가부장적 결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비례하는데, 이것은 순희가 예술에서 자신의 주체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단한 폭 내 전생을 통하여 그려보려고 욕망하여 왔던” “이상의 남성의 얼굴”인 성규의 동생 정규에게 그녀는 예술적 이상과 사랑이 결합된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발현되는 순희의 광기는 열정과 사랑의 직조물이다. 푸코는 열정을 영혼과 육체의 대립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성립되는 복합체적인 영역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열정은 광기의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광기의 가능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³⁰⁾ 정규의 얼굴을 발견

30) 미셸 푸코, 앞의 책, pp.93~94.

한 순희는 그림 창작에 끼니도 잇은 채 불면의 밤을 보내며, 예술 창작의 열정에 휩싸인다. 이것은 창조적 자아의 면모이다. 창조성 또는 예술에의 열정은 인간에게 세계의 주인 됨을 자각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여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아름다운 노을」에서의 여성 주인공 순희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고민과 광기를 통해 근대 여성의 자기 인식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이러한 자기 인식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 강요되는 가부장적 의식임은 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이 정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합되면서 순희의 고민은 구체화된다. 즉, 열 여섯 살의 아들을 둔 미망인인 자신이 아들과 세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리고, 약혼의 말이 오가는 남자의 동생인 정규를 사랑한다는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정규에 대한 감정에 스스로도 곤혹스러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희의 모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청정한 어머니로서가 아니면 도저히” 아들과 대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분열과 광기는 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현된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와 결부된 사랑의 열정, 그것을 가로막는 여성 자신의 의식에 내면화된 가부장적 타자의 목소리가 어울려 폭발되는 것이 「아름다운 노을」의 순희의 광기이다.

「광인수기」의 ‘나’의 광기는 가부장제의 타자적 여성성에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둔 여성의 광기이다. 이와 달리, 「아름다운 노을」에서 순희의 광기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기 안의 타자적 여성성과의 갈등 결과 표출된 광기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술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려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면모와 사랑을 통한 자기 실현의 의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대 지식인 여성의 내면이 훨씬 더 복잡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백신애의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근대 여성들의 주체 인식 방식이 여성의 광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5. 맺음말

백신애가 주로 작품 활동을 한 시기는 일제 식민지 말기에 해당한다. 일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일제의 식민지인과 가부장제 아래의 여성이라는 중첩된 타자적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백신애는 항일 여성 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으로서의 여성의 모순에 대한 형상화는 그녀의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녀 소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 속의 여성-가난한 여성과 지식인 여성-의 문제이다. 그녀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그만큼 그녀가 여성 또는 여성적 인식의 문제에 골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억압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여성의 광기가 그녀의 소설의 중요 주제인 것 또한 우연의 문제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광기를 발현시키는 토대와 내포 및 양상들을 백신애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백신애의 소설을 보면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그녀가 간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의 수호자로서, 그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해 폭발 직전의 내면적 거부 상태에 있다. 여성의 광기를 발현시키는 토대에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 백신애 소설에서는 근대 여성들의 사랑을 통해, 세계와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여성적 사유 방식을 통해, 그리고 여성의 자기불가해성을 통해, 광기의 내포적 의미가 그 윤곽을 드러낸다. 그것은 자신을 명명할 기호를 갖지 못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내적 계기의 구체화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광기는 여성 주체의 자기 인식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여기에서는 가부장제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성 뿐만 아니라 근대적 개인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에 힘입어 예술과 사랑을 통한 창조적 주체로서의 여성성과의 갈등이 광기의 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문학사를 더듬다보면 광인으로 묶어줄 수 있는 일군의 인물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광기가 여성 문학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문학에서 광기는 주로 무의식적인 주체성의 억압과 상실을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을 실현하는 굴절된 방식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광기의 함의는 이보다 더욱 본질적이다. 즉 예술과 문학의 본질인 타자성과 광기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신애의 소설 『아름다운 노을』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의 예술적 광기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타자, 여성 및 광기와의 함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타자와 광인 및 문학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연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여성의 광기와 문학과의 관계는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고 입체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金潤植 편, 『백신애소설집 꺼래이』, 조선일보사, 1987.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혜옥 외,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김현자·김현숙·이은정·황도경, 『한국여성시학』, 깊은샘, 1997.
- 매기 힘, 심정순·염경숙 역, 『페미니즘 사전』, 삼신각, 1995.
- 미셸 푸코,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5.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1996.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 E. H. 카, 김병익·권영빈 역, 『도스토예프스키』, 홍성사, 1981.
- 레나 린트호프, 이란표 역, 『페미니즘 문학이론』, 인간사랑, 1998.
-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6.
-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1999.
- 조세핀 도노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6.
- Toril Moi, 임옥희·이명호·정경심 공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지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85.
- 현길연,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 1991.
-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작가세계』, 1995. 여름.
- 김정란, 「마녀에서 어머니로—80~90년대 여성 시인들의 여성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시적 인식」, 『詩와 反詩』, 1994. 봄.
- 송지현, 「1980년대 한국소설에 있어서의 여성 자아 정립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 담론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2000.6.
- 정혜영, 「연애의 동경과 좌절」, 『현대소설연구』, 제11호, 1999.12.
- , 「근대를 향한 시선—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2000.6.
- 조주현, 「미친년 뉘두리—백신애의 『광인수기』와 길만의 『노란 벽지』를 중심으로」, 『또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 최혜실,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 사랑, 성」,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태학사, 1999.

Abstract

The Madness of Women and the Desire of the Unconscious

- A Study on Baek, Shin-Ae -

Woo, Mi-Young

It is easy to find mad men in literary works across the ages and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ey serve as a mirror which reflects the center, the subject and the whole in the light of the side or the other. We are able to recognize the center from the side and properly make clear 'sideness' by its relation. Deconstructing the structure of contradiction and unreasonableness, we can try to construct the proper structure. There is a need to approach the madness of women in this way.

The literature about the madness of women is a subjective product of women who are castrated in the patriarch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ignifications surrounding the madness of women written by Baek, Shin-Ae. According to her novels, the madness of women is the base that explain female personalities and self-configurations. We can find the feminity as a creative subject by art and love, as well as the logic of patriarchy. The former is caused by the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subject of the modern times. The intense desire about it takes its place in the basis of women's madness in her works. We can find a clue to access dynamically the interior of the female subject of the modern times. By this, we may be able to make clear the relations of women to the other as well as the literature to madness.

